

창업교육 및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황균정¹, 경성림^{2*}

¹전남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²호남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The Effect of Start-up Education and Consulting on Start-up Intention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Start-up Competency

Hwang, Gyun Jeong¹, Cheng-lin Qing^{2*}

¹Professor, Dept. of Regional Leading University Business Group, Chonnam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창업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영향관계에 있어 창업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광주·전남 지역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창업교육 및 창업컨설팅은 창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역량은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의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수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효과적인 창업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향상시켜 양호한 창업문화를 형성하는 데 연구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역량, 창업의지, 창업문화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consulting program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pre-founders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ship competence in these influence relationships.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pre-founders in Gwangju and Jeonnam areas for empiric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ctual analysis,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consulting showed a positive (+) effect on entrepreneurship competency,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consulting showed a statistical significance as a paramet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wil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for effective start-up education and consulting programs, thereby improving the entrepreneurial will of pre-founders and forming a good start-up culture. Finally, this study also presented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 Words : Start-up Education, Start-up Consulting, Start-up Competency, Start-up Intention, Start-up Culture

*Corresponding Author : Chenglin Qing(2013129@honam.ac.kr)

Received April 22, 2021

Accepted June 20, 2021

Revised May 13, 2021

Published June 28, 2021

1. 서론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기불황은 심화되고 실업률은 증가되며 많은 청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정부 및 여러 기관들은 창업관련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창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한 사전 교육과 준비를 갖추지 못한 창업자들이 속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1].

창업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숙지정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창업을 시행하게 되면 실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고 적절한 창업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2].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다양한 창업교육들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질적인 체계 구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실정이다[3].

이에 본 연구는 잠재적 창업자인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창업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영향관계에 있어 창업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효과적인 창업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강화하여 양호한 창업문화를 형성하는데 연구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설정

2.1 창업교육 및 컨설팅

창업교육이란 창업아이템의 탐색,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수립 및 성공적인 회사운영 등에 필요한 지식, 태도, 능력 및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함양하는 것이다[4]. 창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비창업자 및 잠재적 창업자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다. 특히 창업교육을 통한 후천적인 창업가 육성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창업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5]. 또한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6, 7].

창업컨설팅은 창업전문지식이나 창업경험, 환경적 대

응 능력 및 상황판단 등 가치 창출에 직접 참여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8]. 또한 예비창업자들에게 기존 사업자들의 경영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전략을 분석하여 해결책이나 방안을 자문해주는 전문적인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창업컨설팅 시장은 크게 정부 주관 지원사업과 민간 창업컨설팅 시장으로 이루고 있다.

정부주관 창업컨설팅지원은 중소기업의 영세성, 자금의 취약성 및 열악한 기업자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창업컨설팅시장은 자기부담 비용으로 업체를 통한 자문방식으로 진행된다. 창업컨설팅은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창업 성공률을 높여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9].

2.2 창업역량

창업역량은 창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능력측정이고[10], 장영미·하규수(2018)은 창업역량을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능력으로 보고 있으며, 창업자의 경험이나 스킬, 지식 등이 포함되어 있는 높은 수준의 특성이라고 하였다[11]. 창업자들은 성공적인 창업과정을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및 가치가 필요하다.

2.3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로 창업을 이루게 하는 행동이며, 창업에 대한 미래방향을 설정하고 성공으로 나아가려는 예비창업자의 마음가짐이다[12]. 김문성·이준우(2017)는 창업의 성공을 위한 창업의사와 열정, 준비 등을 창업의지로 보았다[13].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예비창업자의 인구·사회적 개인 특성, 창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지적수준, 개인의 심리적 요인 등이 있다.

2.4 창업교육 및 컨설팅과 창업역량 간의 관계

김용태(2017)는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창업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역량들을 형성할 수 있으며,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창업에 대한 컨설팅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시켜 창업자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3]. 이러한 관련성에 기초하여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1: 창업교육은 창업역량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창업컨설팅은 창업역량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창업역량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

정두식(2016)은 잠재적 창업자인 직장인, 대학원생, 베이비붐 세대 등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창업자 역량은 창업의지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4], 이재석·이상명(2015)은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예비창업자들의 역량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7].

가설3: 창업역량은 창업의지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창업역량의 매개효과

곽동신 외(2016)은 교육을 통한 후천적인 노력으로 창업의지를 향상시키거나 창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15], 김예정(2019)은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 간의 영향에 관계에서 매개효과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창업역량은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5: 창업역량은 창업컨설팅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3.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광주·전남 지역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250부를 배포하였고 수거한 설문 중에서 파손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20부를 데이터분석에 사용하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SPSS24.0을 통해 연구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같은 기초분석과 가설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변수 간의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Cronbach's 알파를 사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고, 측정변수의 단일차원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설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 185명(84.1%), 여성 35명(15.9%)이다. 연령은 20대 94명(42.7%), 30대 105명(47.7%), 40대 21명(9.6%)이다. 학력은 전문대학교 졸업 61명(27.7%), 대학교 졸업 131명(59.5%), 대학원(석/박사) 졸업 28명(12.8%)이다. 창업유형은 온라인 창업 189명(85.9%), 오프라인 창업 31명(14.1%)으로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들이 온라인 창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창업 168명(76.4%), 2인 창업 41명(18.6%), 3인 이상 창업 11명(5%)으로 1인 창업이 가장 많았다.

4.2 신뢰성 및 타당도 분석

Table 1. The Result of Convergent Validity

Variables	loading	eigenvalue	Cronbach's α	
ES	1	.778	2.63741	.782
	2	.764		
	3	.708		
	4	.551		
CS	1	.729	2.46491	.756
	2	.664		
	3	.641		
	4	.597		
EC	1	.799	2.04698	.786
	2	.746		
	3	.500		
EI	1	.777	2.75727	.793
	2	.742		
	3	.685		
	4	.618		
	5	.601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직

각회정방식인 베리팩스 방법을 통해 고유 값 1.0 이상, 요인적재량 0.5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KMO 값이 .904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모든 변수들이 0.7이상으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4.3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수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Table 2와 같이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역량 및 창업의지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상관계수는 .479에서 .653 사이로 변수 간에 일정한 수준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Table 2.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ES	CS	EC	EI
ES	-			
CS	.553**	-		
EC	.565**	.653**	-	
EI	.479**	.501**	.520**	-

***: $p < .001$, **: $p < .01$, *: $p < .05$

4.4 가설검증

본 연구는 창업교육 및 컨설팅지원이 창업의지는 미치는 영향과 창업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은 가설1과 가설2의 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은 창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과 가설2는 채택되었다.

Table 3. Result of Hypothesis 1-2

model	Non-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t	p
	B	Standard Daviation	β		
ES	.584	.058	.565	10.104	.000
$R^2=.319$ (Adjusted $R^2=.316$) $F=102.096$ $P=.000$ Durbin-Watson=2.103					
model	Non-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t	p
	B	Standard Daviation	β		
CS	.723	.057	.653	12.722	.000
$R^2=.426$ (Adjusted $R^2=.423$) $F=161.838$ $P=.000$ Durbin-Watson=1.940					

***: $p < .001$, **: $p < .01$, *: $p < .05$ (Dependent Variable: EC)

Table 4는 창업역량과 창업의지의 영향관계를 분석할 결과, 창업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은 채택되었다.

Table 4. Result of Hypothesis 3

model	Non-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t	p
	B	Standard Daviation	β		
EC	.420	.047	.520	8.978	.000
$R^2=.270$ (Adjusted $R^2=.267$) $F=80.599$ $P=.000$ Durbin-Watson=1.861					

***: $p < .001$, **: $p < .01$, *: $p < .05$ (Dependent Variable: EI)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창업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Table 5와 같다. 3단계의 독립변수인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은 2단계의 값보다 적게 나타나 매개변수인 창업역량의 부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4와 가설5는 채택되었다.

Table 5. Result of Hypothesis 4-5

	Step2		Step3	
	β	p	β	p
ES	.479	.000	.273	.000
EC			.365	.000
R^2	.230		.321	
Adjusted R^2	.226		.314	
F	65.042		51.223	
CS	.501	.000	.282	.000
EC			.335	.000
R^2	.251		.316	
Adjusted R^2	.248		.309	
F	73.086		50.039	

5. 결론

5.1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창업교육 및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역량의 매개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 및 창업컨설팅은 창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창업자의 역량을 제고하여 창업의지를 향상시켜 창업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향상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과 증대시키고 염려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창업역량은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의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수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창업자들의 역량이 높을수록 창업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창업교육 및 컨설팅과 같은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창업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창업역량에 맞는 맞춤형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확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을 지원하는 정부 주관 부서나 민간사설 업체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의 개인적 역량과 환경적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창업의지를 더욱 향상시키고 나아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창업교육 및 컨설팅과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매개변수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창업의지를 통한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여 창업교육 및 창업컨설팅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둘째, 표본의 수가 적어 일반화의 한계를 가지며 대부분의 표본이 20-30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표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향후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Y. M. Jang & K. S. Ha. (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Senior's Entrepreneurial Competen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3), 13-36.
- [2] Y. T. Kim. (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n 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2), 267-277.
- [3] K. H. Kim & Y. T. Kim. (2014). Effects of Start-up Mentoring Educational Factors on Satisfaction with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9(5), 33-41.
- [4] Y. T. Kim. (2017).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Attitude on Undergraduate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2), 13-20.
- [5] T. N. Garavan & B. O'Connell (1994).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 Review and Evaluation-Part 1.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8(8), 3-12. <https://doi.org/10.1108/03090599410068024>
- [6] J. A. Timmons. (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Boston: Irwin/McGraw-Hill.
- [7] J. S. Lee & S. M. Lee.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61-74.
- [8] S. H. Park & B. M. Sel. (2014). Case study on startup consulting with students of entrepreneurship graduate and undergraduate: Entrepreneurship training and consulting program using action learn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1), 25-32.
- [9] N. P. Kim & Y. J. Kwon. (2018). An Examina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Start-up Readiness, Social Support, Government Start-up Consulting, and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13(3), 1-25.
- [10] Y. J. Kim. (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art-up Performance: Focused on the Inter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and Differentiated Competitive Advantag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4), 63-73.
- [11] S. G. Cho & C. S. Lee. (2010). The Effect of Utilizing Management Innovation Techniques and Attributes of Non Financial Performance Indice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Journal of finance and accounting information*, 10(2), 47-67.
- [12] S. H. Kim & S. H. Byen. (2018). The Effect of Pre-entrepreneur's Individual Norm and Start-up Preparation Level on a Start-up Intention: Focusing on a Moderation Effect in Start-u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13(1), 11-21.
- [13] M. S. Kim & J. W. Lee. (2017). The Effects of TEC Education's Satisfac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 Competence.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2(1), 310-334.

- [14] D. S. Jung. (2016). An Empe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Start-up Intention : Focuse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areer Orienta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9(4), 1565-1586.
- [15] D. S. Kwak, H. Y. Jung & M. S. Kim. (2016). The Effect of University Entrepreneurial Education Service Quality on Education Satisfaction, Entrepreneurial Cap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11(4), 37-48.

황 균 정(Hwang, Gyun Jeong)

[정회원]



- 2016년 2월 : 서남대학교 디자인과(미술학사)
- 2018년 2월 : 광주대학교 디자인학과(디자인석사)
- 2021년 2월 : 광주대학교 디자인학과 디자인학박사
- 2018년 10월 ~ 현재 : 전남대학교 산

학협력중점교수

- 관심분야 :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문화관광창업, 디자인창업, 문화관상상품
- E-Mail : mirimtotal@gmail.com

경 성 림(Cheng-Lin Qing)

[정회원]



- 2007년 7월 : 중국강서사범대학교전자상거래(경영학사)
- 2010년 2월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도시·지역개발학석사)
- 2014년 2월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도시·지역개발학박사)
- 2013년 10월 ~ 현재 : 호남대학교 경

영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개발정책, 전자상거래, 창업정책
- E-Mail : 2013129@honam.ac.kr